

横書新聞活字

仁川職業訓練院 印刷科

朴 定 奎

1. 序 言

우리나라 近代新聞을 漢城旬報(1883年高宗20年)로부터 계산한다면 금년이 100週年이 되는 해이다.

그간 우리 印刷產業은 Hot Type에서 Cold Type 즉, 金屬印刷에서 光學文字印刷로 바뀌어졌고 施設은 手動에서 自動으로 超高速精密機械化되는 革新을 가졌다. 이러한 發展過程中에서도 新聞은 그 施設이나 技述이 一般印刷分野보다 進一步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新聞만은 編輯体裁가 한결같이 縱書로 되어 있는데 그 理由와 妥当性은 많이 있겠으나 変遷하는 社會의 흐름을 無視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新聞의 可讀性能率向上 및 国民保健(視力保護)에 寄与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도록 여러가지 問題點을 提起하면서 그 改善 方向을 模索해 보았다.

2. 現行 縱書新聞의 問題点

現在 잡지, 정기 간행물을 비롯하여 각종도서가 橫書編輯体裁로 78年以後 크게 拡大되어 出版文化의 새로운 起源으로 定着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出版社가 讀者들의 讀書習慣등을 파악 그必要성이 높아 집으로써 本格화되고 있는 것이다.

橫書·縱書編輯体裁 뜻지 않게 習慣이 讀書能率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縱書로 編輯된 新聞을 읽고 볼 때 橫書로 된 教科書로 10餘年 教育을 받은 젊은 세대(70%)와 解放前 縱書로 된 教科書로 공부했던 既成世代(30%)를 比較해 볼 때 百年大計를 위해 어느 方向 및 原則인 設定되어야 되겠는가는 明若觀火한 것이다.

우리 人間의 눈은 가로로 2個의 눈이 位置하여 있기 때문에 眼科医들은 눈의 生理的構造로 보아 縱書보다 橫書가 읽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人間의 눈에는 2個의 잘 発達된 筋肉이 있는데 눈을 좌우로 움직일 때는 이 2개의 筋肉의 힘을 빌기 때문에 力學上 単純한 힘이 作用하는데 비해 눈을 上下로 움직일 때는 더 다른 부잡한 筋肉의 負担으로 橫書가 縱書보다 人間 生理上 더 効果의이라는 日本眼科醫師 佐藤勉博士의 理論에도 符合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日本眼科学会에서 一般石代는 “우리 글은 本来 縱書 쓰기로 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習慣化 되었기 때문에 이 影響을 받지 않는 ○나 □ 등의 意味가 없는 圖形을 縱과 橫으로 實驗한 結果 橫方向의 쪽이 빨리 읽을 수 있었다”고 橫書의 有益性을 報告하였다.

또한 筆者の 研究 實驗에 依하면 30cm 거리에서 책을 볼 때 縱方向으로는 中心点에서 위로 30cm, 아래로 30cm, 합계 60cm의 範圍가 視野에 들어오고, 좌우쪽은 그 2배인 60cm로 120cm의 範圍가 된다. 이것은 눈의 화각을 意味하는 것으로 縱方向의 화각은 50°이며 橫方向의 화각은 126°가 된다.

카메라 렌즈는 中心部로부터 上원 (image circle) 部分을 지나 주변부로 나가게 되면 상의 球面収差가 発生되는데 이때 화각이 적은 것은 큰것보다 더 많은 収差가 일어난다.

우리의 눈도 球面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이다.

보대학에서 縱書와 橫書를 가지고 速讀調査를 한 結果 橫書가 6 ~ 7 % 정도, 速讀學院에서는 15 % 빠르다는 結果도 있다.

소설책에서 橫書로 編輯된 것보다도 縱書로 된 것은 2 단으로 編輯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눈이 상하로 움직이는 범위가 좁은 것을 감안하여 눈의 피로도 및 不必要한 目運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랜 出版經驗에 의해 施行되고 있는 것이다.

可讀性의 優位問題를 떠나서 實用的인 면에서도 橫書쪽으로 變化시켜야 할 理由는 많다.

첫째. 교통, 통신 수단의 發達로 外國과의 接触이 많아지고 外來語의 使用이 增加하는 추세에 있으며 모든 印刷物에서 外國語의 併用이 불가피하므로 해서 橫書가 유리해진다.

둘째, 자연과학에서도 数量的 处理가 激增함으로써 数字의 使用이 빈번해진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글라이노타이프가 開發되어 이를 사용하게 되면 機械構造上 橫書의 사용이 불가피해 진다.

넷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青少年들의 讀書習慣을 無視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新聞活字 拡大의 必要性

눈은 人間의 身體에서 가장 重要한 부분의 하나이다. 研究報告書에 의하면 7官이 뇌에 자극을 伝達하는 技能을 百分率로 보면 시각이 80 %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각으로 7 %, 기타가 13 %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근래 안경을 사용하는 인구는 幾何學의 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것을 TV에 많은 影響도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읽고 있는 印刷物中 特히 新聞과 사전류에 그 영향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新聞의 可讀性을 높이고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活字의 크기, 行의 길이, 行과 行사이, 字間과 語間, 書體들의 많은 研究가 必要하다고 본다.

이에 関하여는 日本의 学者 草島時介氏가 많은 研究를 해 놓았다. 그 研究結果에 의하면 10.5 포인트 (5号) 活字와 9포인트 活字를 使用, 橫書로 된 문장 (各行 20字, 1行길이 7.5 cm, 行間 4.5 mm, 흑색 잉크, 無光沢 白紙印刷) 을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選定한 학생을 대상으로 個人検査를 2分間 실시한 결과 9포인트 활자의 경우 중학생은 948자를 고등학생은 1,267자를 읽었으며, 10.5 포인트로 짜여져 있는 문장은 중학생이 955자, 고등학생이 1,376자를 읽음으로써 10.5 포인트의 활자가 9포인트 활자보다 중학생이 7자 고등학생이 109자를 더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活字 크기에 따른 眼球運動을 測定한 D.G.Paterson과 M.A.Tinker의 研究에 의하면 10포인트 活字以外의 크거나 작은 모든 活字는 讀書速度의 지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分析했다.

1981年 7月 日本 朝日新聞이 本文 活字 拡大改善을 단행,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79년 초 読売新聞이一部 活字 全角化로 큰 호평을 누렸던바 그 당시 朝日측은 '그것을 대견찮게 알잡아 보았었다. 그러나 大發行部數가 백사십만부나 뒤치지고야 뒤늦게 느껴 全面的 拡大로써 반격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読売측도 아연장장, 經營의 鬼材라는 務台社長이 更迭, 새 經營体裁로 대응하게 되었다.

本文 活字가 얼마나 요긴한 新聞媒體의 武器인가를 시사했다.

現在 各新聞社에서 使用되고 있는 扁平活字는 가로가 8포인트, 세로가 6.4포인트로서 日本의 活字 拡大前 (가로 8 × 세로 6.8) 의 것보다도 작으며

横書新聞活字

같은 크기의 活字에서도 우리글은 일본글에 비해 획수가 많은 関係로 더 작은 글자가 되는 結果가 된다.

現在 新聞은 12면으로 発行되는데 1面의 活字数를 계산한다면, 新聞 1면은 17殷이며, 1殷은 13자이고 縱數는 100~115이므로 23,637 자가 되며, 12面 総活字数는 283,764字가 된다.

이것을 写真 領題活字를 대략 40%로 하고 感算하더라도 170,258字가 된다.

1分間 읽는 글자 수를 600字로 하고 新聞을 全般的으로 읽는다면 4~5時間이 所要된다.

파연 新聞을 전부 읽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음 図表는 朝日新聞이 81年 10月에 実施했던 新聞報道와 國民意識 与論調査중에서 “당신은 新聞을 읽는데 하루 중 어느 程度의 時間을 할애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내며過去 2回의 読者調査의 같은 질문에 대한 結果와 比較한 것이다.

년도 시간	71년 10月	78년 4월	81년 10월
10분 정도	9.7%	17.9%	18.4%
20 "	13.4%	15.0%	13.0%
30 "	32.3%	30.9%	30.8%
40 ~ 50분	8.5%	5.6%	4.5%
1시간	23.1%	20.0%	17.8%
1시간 30분	5.0%	3.8%	3.3%
2시간	4.4%	4.0%	4.2%
2시간 이상	1.8%	1.8%	1.3%
분명치 않다.	1.8%	1.0%	6.7%
1인당 평균	45𠂊	41분	38분

図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읽는 시간 38~45分을 우리 新聞에 代入을 하여 檢討하면 総記事內容의 18%만 읽는다는 結論이 된다.

그러므로 編輯體裁를 現在 1殷 13字를 1殷 11~12字 크기로, 즉 $\frac{1}{13} \sim \frac{2}{13}$ 拡大하면 記事減縮量은 7.7~15.4%될 것이나 編輯體裁를 좀더 간략하게 中점 要約 記事化 시키는 製作技術補院

이 요구되므로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新聞의 読者層은 여러층으로 区別될 수 있다. 각기 自己의 関心과 必要부분만 읽는 것이 通例이나 読者들이 이記事는 읽을만한 價置가 있다고 느껴서 읽도록 誘導하려면 활자가 우선 커져야만 될 것이다.

한글은 字型의 類似性, 즉 접 한개로서 完全히 다른 글자가 되는 것이며, 각字가 初声 中声, 終声의 3要素를 회보다 가로 굿는 회의 3要素가 빈도가 높고 그 3要素가 세로로 3層構造로 이루는 字가 많기 때문에 가로 幅보다는 세로 길이를 더 요구하는 縱長體構造이다.

그런데 現在 新聞에 使用되는 平形活字는 日本에서 開發된 것으로 여러 가지 長점이 있으나 우리 한글에 適合치 않는 根本의 問題點이 있는 것입니다.

납작 글자인 平形活字에서 「물과 물」「를과 틀」「물과 물」, 「홍과 홍」은 좀처럼 判別이 안되어 「김홍진」하면 「金弘振」인지 「金興振」인지 判

讀이 어렵고 비판(批判)론자인지 비판(非鬱)론자인지 모호하다.

이러한 엇비슷하고 깨알같이 잘다자 글자로 뉴스記事를 表記하니 読者は 앞뒤 文脈條理에 의지하여 意味를 더듬어 나가고 있다.

以上 說明한 바와 같이 한글 固有의 特性을 살리기 위해서는 縱長體가 理想的인 것 같다. 또한 橫書

로 韓國의 새 글자의 폭이 좁아지는 関係로 可讀性 向上의 또 다른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음에 橫의 길이가 可讀性에 많은 影響을 준다는 것은 여러 研究에 依해서 밝혀지고 있다.

한 行의 活字가 가장 읽기 좋은 結果를 얻기 위해서는 그 活字의 포인트 사이즈의 $1\frac{1}{2}$ 의 파이커 길이로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포인트 活字의 경우 가장 좋은 可讀性을 갖기 위해서는 한 行의 길이를 15파이커 길이로 잡는 것이 理想的이라고 한다.

正常人이 明視距離 30cm 전방에서 実像을 맷을 수 있는 거리는 5.8cm이므로 현행 1般의 길이 2.8cm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4. 結 言

以上의 詳述한 것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提言하는 바이다.

첫째, 新聞体裁改革案에 대해서 政府機關, 新聞人, 出版人, 教育学者로 構成된 委員會가 政府主管下에 追道되어야 한다.

둘째, 장년층에 해당되는 讀者들이 縱書에 대한 愛着心과 習慣化 및 經濟權을 가지고 있는 家庭의 가장으로서의 現位置를 無視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急進的으로 發展하는 現社會의 時代的 要求에 맞추어 旣態依然한 態度를 버리고 젊은 世代를 자식과 동생처럼 생각해서 수십년간 눈에 익혀 왔던 縱書에 대한 觀念을 내일의 繁榮과 發展을 위해 讓歩하는 美德을 發揮할時期가 온 것을 認識해야 될 것이다.

셋째, 日刊新聞에 經營者 및 編輯人은 1世記에 該當되는 오랜 歲月을 縱書로 編輯을 해서 發行되었던 것에 愛着心을 果敢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体裁의 定着을 為해서 經濟的 難關과 施行上의 諸般 問題點 解決에 最善의 努力を 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新聞發行의 主役인 各 部署의 技能人們

들도 縱書新聞發行의 장기적인 習慣化로 인하여 새로운 作業基準의 變更은 여러 가지 問題點과 副作用이 있을 것이나 언젠가는 한번 반드시 겪어야 할 新聞 体裁의 과제인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81. 10. 6. 朝鮮日報 讀者論壇에 “橫書新聞과 活字” 投稿와 동시에 文公部와 新聞人協會 編輯人協會에 建議書를 제출하여 多方面으로 研究 検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現在 各 日刊新聞에서는 橫書에 對한 實驗 케이스로 部分的 橫書 固定儀가 할애되고 또 增加일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放送通信大學에 橫書에 編輯体裁改革 建議書를 提出한 2個月後 82. 9. 13 (347号) 字學報부터 50%의 該當되는 部分 즉, 4面 全體가 橫書로 發行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면 8면이 橫書로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参 考 文 献

朴 日, 速讀教本

李鍾翊, 印刷界 83号, 教科書体裁와 品質

徐康和 新聞과 放送 134号, 新聞活字의 理想型과 크기

박화엽 서울大學校師大論叢 14輯

讀書能力을 위한 實驗研究

최종수 韓國新聞編輯論

今井直一, 書物과 活字

藤森善貢 出版技述

青本信利, 凸版製版印刷技術